

세계화와 국내 대학의 미래 향방



인하대학교 교수 채 재 우

1년여 전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중국의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활기와 희망찬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우리들의 생활수준에 비해 아직 미흡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현재 졸업 후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너무 어려운 여건이다. 그런데 중국의 학생들은 여러 회사의 취업 제안을 받고 선택하는데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대학에 부임한 1980년도 초반만 해도 우리도 지금보다는 생활수준이 훨씬 낮았지만 희망이 있었다. 큰 기업체 간부들은 우리 교수들을 초청하여 자기 공장도 견학시키고 접대도 융숭히 하면서 졸업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그 당시 우리는 고도성장에 1988서울올림픽 유치의 특수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발전과 취업의 문은 무한대로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 15억 인구의 거인 중국

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쥐를 잘 잡는 고양이인지가 중요하다.”는 자본주의적 실용화 노선을 선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 덩치의 중국이 엄청난 가속도를 받고 있다. 가공할 일이다. 세계의 제조업을 모두 빨아들일 기세로 세계적 우수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나의 전공과 유관한 자동차 산업만 보아도 걱정이 앞선다. 2003년 초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이 세계 5위인 통계가 나돌더니 2003년 말에는 언제 바뀌었는지 세계5위 자동차 생산국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들이 경쟁하기에 아직도 힘겨운 우수한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이다.

선진 자동차 회사들이 최첨단 모델의 생산 라인을 중국에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차선의 첨단 모델의 생산라인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다. 그들과 경쟁을 하려면 우리는 중국에 어떤 생산 라인을

제공해야 하는가? 중국에 기술을 제공하고 나면 우리에게 세계의 선진 기술과 경쟁할 우리 고유의 첨단 기술은 남아있는 것인가?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로 CO2저감이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열효율이 높은 디젤차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디젤차량의 생산 확대에 따른 디젤 엔진 오염 물질 배출 저감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최근 관련 핵심기술 소개 세미나가 국내에서 열렸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해서 관련 첨단 핵심 기술들을 소개한 기업체들은 모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 업체들이었다. 그들은 확대되는 디젤차 시장에 고부가 핵심 부품의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양산체제의 생산라인에 고부가 핵심부품들의 국산화가 미흡하다면 국내의 자동차 산업은 얼마나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에서는 유사한 품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으로 우리보다 저렴한 차량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와는 달리 일본,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산업의 선진국들은 모두 고부가 핵심 기술들을 계속 개발 및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는 인건비에 의존하는 단순한 제조업에 더

몰리서는 안 됨을 깨닫는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세계의 제조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을 옆에 둔 우리의 갈 길은 정상으로의 역경을 극복하는 길 밖에 없다. 첨단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 인력의 양성 이외의 대안은 없다.

그런데 국내 대학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몇 해 전 어느 재벌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국내 대학 교육의 질을 언급한 적이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이 너무 낮아 회사에 입사한 후 재교육에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 회사 제품의 질이 나쁘면 A/S라도 해주는데 대학에서는 그런 A/S 노력도 없다”라고 혹독히 대학을 비난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할말은 없다. 그러나, 그 회장은 졸업생을 “돈 주고 사가지”도 않았으며 교육 과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당각하고 있다. 교육의 투자는 국가나 기업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전쟁터에 내 보내는 전사들을 교육하는 신병 훈련소에서 실탄 사격 훈련 등 실전에 가까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 또한 사립대와 국립대의 국가 및 기업의 지원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를 구별하는 어리석음을 택할 것이 아니라 국립